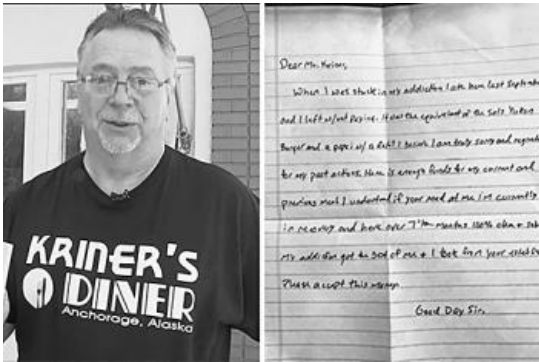


돌아온 무전취식 손님 용서한 식당 주인



▲ 크리너와 그가 받은 편지. 사진=나우뉴스

무전취식 후 도망쳤던 손님이 8개월 만에 돌아와 건넨 편지 한 통에 식당 주인이 눈물을 흘렸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11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앤디 크리너는 지난달 28일 낯선 손님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과거 자신의 무전취식에 대한 고백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손님은 “친애하는 크리너, 작년 9월에

여기서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은 채 도망쳤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과거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복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주세요.” 라고 적힌 편지와 8개월 전 밥값을 남기고 떠났다.

식당 주인인 크리너는 “편지를 읽고 아내와 같이 울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감격스러워했다. 그는 “가끔씩 무전취식하고 도망가는 손님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 어린 편지와 함께 돌아오다니 정말 멋있다.”면서 “손님의 친절한 편지 한 통으로 자신의 하루가 행복해졌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면서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손님들이 있는데, 나는 결코 화가 난 적이 없었다. 무전취식할 정도로 배가 고프고 힘든 상황이었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크리너는 “당신에게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라며 중독 문제를 잘 극복하고 언젠가 다시 식당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복수심이 낳은 참극



▲ 음식 배달원은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유튜브(Tribunnews.com) 캡처

한 여성의 복수심에 한 관계 없는 한 소년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자바섬 욕야카르타 반틀에서 8살 남자 어린이가 아버지가 가져온 음식을 먹다 사망했다. 부검 결과 소년의 몸에서는 사이안화칼륨이 검출됐다. 사이안화칼륨은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독극물이다.

독극물은 죽기 직전 소년이 먹은 꼬치 요리에서도 검출됐다. 해당 요리는 배달원인 소년의 아버지가 배달을 나갔다가 퇴짜를 맞고 집으로 가져온 음식이었다. 소년의 아버지는 “친구에게 가져다 달라는 어떤 여자의 부탁을 받고 음식 배달을 나갔다가 퇴짜를 맞았다. 배달을 받은 집에서는 누가 보낸 음식인지도 모르는데 받을 수 없다.”며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서 먹든 말든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년의 아버지는 배달 음식을 집으로 가져갔고 그 음식은 아내와 아들의 몫이 됐다. 그런데 음식에는 독극물이 들어있었고, 그 음식을 먹은 아내는 다행히 회복됐지만 아들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배달원 진술에 따라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한 젊은 여성을 용의자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체포된 용의자는 전남친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독이 든 음식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원은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내가 그 음식을 들고 집으로 오지만 않았어도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저 배달을 하려 한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가슴을 쳤다.

임신 사실 몰랐던 여성, 여객기에서 출산



▲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여성이 도착지 병원에서 치료에 들어간 아이를 안고 있다. 사진=유튜브(FOX 11 Los Angeles) 캡처

한 여성이 임신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기내에서 출산했다.

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유타주에 사는 여성 라비니아 문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위해 하와이로 향하는 델타항공 비행기에 올랐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고, 가

족들은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기내에는 캔자스시티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탑승해 있었다.

의료진은 승무원들과 출산을 돕기 시작했고, 여성은 3시간의 진통 끝에 무사히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산모와 아기는 하와이에 도착한 직후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생아는 임신 26~27주 만에 태어난 조산아였고 곧바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에 들어갔다.

이후 알려진 놀라운 사실은 기내에서 출산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여성뿐만 아니라 현장에 없었던 남자친구 역시 임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생아는 현지 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출산한 여성의 가족들은 아기를 유타주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기 위한 온라인모금페이지를 개설했다.

확실하게 다른 치료요법과 탁월한 효과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 위장병
- 각종 통증
- 우울증
- 불면증
- 알러지, 피부병
- 공황장애
- 비만, 불임
- 오십견
- 목,허리디스크
- 중풍 후유증
- 소아 자폐증
- 파킨슨병, 치매



얼바인에서 제일 크고 쾌적한 한의원
 훌륭한 치료, 저렴한 가격
 정확한 진맥과 훌륭한 처방

난치병을 잘 치료하기로 소문난 얼바인

북경 차한의원

Dr. 차계향 Ph. D., L.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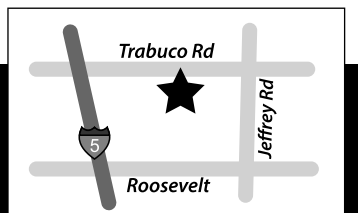
- 중국중의과학원 의학박사 (중의내과)
- 북경중의약대학 의학석사 (침구추나)
- 요녕중의약대학 의학학사 (중의과)
- 세계 최고권위 중의 명문대학에서 중국 MD 및 중의사 자격증 취득
- 신경내과, 소화기내과 및 임상침구학 전공
- “만성위염의 중의 임상치료 가이드”편찬 참여
- 중국 최고권위 중서의 종합병원 서원병원 동적문병원 등 대형대학병원임상 13년, 전체 임상경력 23년
- 1급 양생기공사 자격, 기공수련 30여년
- 미국내 중의대 교수

기 침(氣針)

에너지 경락 추나 마사지

기공진복(氣功振腹)

태극 불 부항, 옥 경락 팔사



www.acupuncturecha.com

北京中和國醫堂

PPO 보험
 취급

949.426.9070 / 626.899.5166
 5400 Trabuco Rd. Suite 130, Irvine, CA 92620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가능